신아일보 (http://www.shinailbo.co.kr)

연천 'DMZ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' 추진

김명호 기자 | 승인 2022.01.27 16:14

이번 사업은 은대리에 위치한 폐벽돌공장을 'DMZ 피스브릭하우스'라는 문화예술을 통한 DMZ 관광의 거점이자 주민주도형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 작품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했다.

용역 수행사인 ㈜피에이씨 건축사사무소는 기존 폐벽돌공장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롭게 들어설 전시공간, 다목적홀, 세미나실 및 카페 등 기타 편의시설과 같은 영역을 구획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동선 등을 제시했다.

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도가 낮은 기존 구조물 중 일부는 인테리어로 사용하는 등 기존 폐벽돌공장의 상징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했음을 강조했다.

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군수와 군의원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은대리 벽돌공장이 연천군 DMZ 관광의 랜드마크로써 기능하고, 국내외 예술가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.

군 관계자는 "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폐벽돌공장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복합공간인 DMZ 피스브릭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는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며, 이후 1년여의 공사를 거쳐 2024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[신아일보] 연천/김명호 기자

저작권자 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인쇄